

2004년도 제5회 금연사진 공모

■ 심사평

제5회 짝을 맞는 금연사진 공모전은 본 궤도에 올라 작품 수는 예년과 같으나 작품수준은 매우 좋아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다. 사진의 소재도 다양해졌고, 접근방식도 진지하면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출품하는 사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본 공모전의 어려운 점이 '금연'이라는 단일 주제여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접근방식에 따라서는 도리어 쉬울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의 건강차원, 가족의 건강, 흡연자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표출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시켜야 한다. 이러한 주제 접근이 확실하며 나아가서는 포토 캠페인적 성질이 연상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 이외에 심사기준은 창작성과 아이디어나 내용이 전년에 발표했던 사진과도 유사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시각이어야 한다. 한 화면에 완벽하게 응축된 구성력, 테크닉적 측면에서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 보편 타당성의 사진이고 공감이가야 한다. 다큐멘터리 사진이 아니고 창작사진이어서 어느 정도의 연출이나 합성은 신선하나 너무 과도한 포토샵에 의한 기교는 제외되며,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사진은 제외된다.

가급적으로 부정적 의미의 사진보다는 긍정적 의미의 사진, 나아가서는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우대했다.

대상인 이재원의 '아빠, 너무해요'는 등위에 앉은 딸을 무시하고 아빠가 마구 피는 담배연기로 고통받는 표정의 리얼한 포착이다. 완벽한 서터찬스와 긴박감 넘치는 구성과 짜임새는 이 사진의 모체가 되며, 본인의 무절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해친다는 포토캠페인의 강렬한 부각이 밀도 있게 표현되었고, 테크닉적 측면에서도 관전의 각도는 물론 합성하지 않은 스트레이트한 사진이면서도 주제의 확실함이 성공한 사진이다.

금상인 한용덕의 '뒤늦은 후회'는 흡연을 만끽하는 포토레이트 사진과 나무 껍질을 합성한 사진으로 흡연은 죽음을 초래한다는 예지적인 사진이다. 구성이나 합성의도가 뚜렷하고 테크닉이 완벽한 사진이다.

은상인 주영미의 '흡연으로 당신의 생명의 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는 흡연장면에 모래시계를 부각시킨 이 사진은 '흡연은 짧은 시간부 인생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사진으로 의미부여가 뚜렷하며 진지하다.

은상인 권대현의 '죽음의 향'은 흡연과 죽음을 결부 짓는 강력한 설득력의 사진이고 담배연기로 아웃 오브 포커스 시킨 작품으로 시각적 테크닉이 뛰어나다.

홍순태 심사위원장(신구대학 사진학과 명예교수)

■ 수상자 명단

<<<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 이재원(아빠 너무해요!)

<<< 금상

△ 한용덕(뒤늦은 후회)

<<< 은상

△ 주영미(흡연으로 당신의 생명의 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권대현(죽음의 향)

<<< 동상

△ 신선희(그림일기), 정해숙(금연약속), 이재진(아빠 약속!!), 정인식(담배연기 싫어요), 조소영(내인생의 먹구름)

<<< 가작

△ 광세은(말보르 맨의 최후2), 고수미(간접 흡연속에 고통받는 가족들), 한우석(Cigar), 박문규(기원), 박선미(우리의 미래는?), 안병옥(우리가족의 소원), 서병태(흡연자의 고노), 권순덕(늬), 김태원(담배는 새싹들의 적), 유찬도(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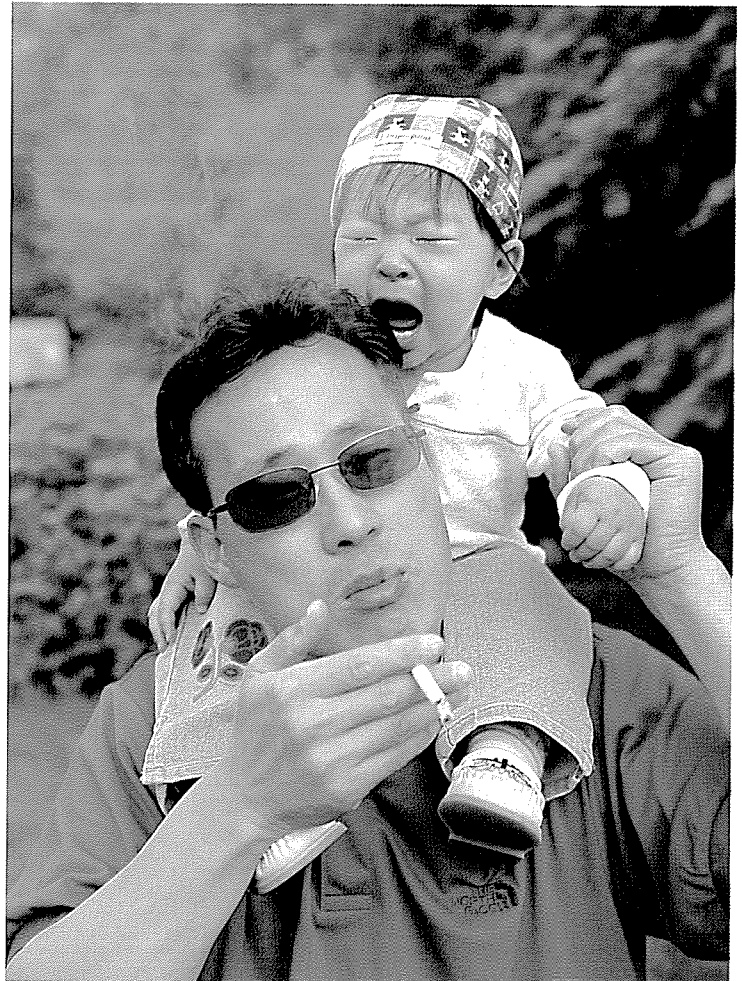
<<< 입선

△ 양명제(우리 가정 3부자 금연), 최종현(공기오염 실험), 남기중(아빠, 담배가 좋아요, 제가 좋아요?), 안지은(악마의 연기), 최현희(귀롭지 않으십니까?), 장한이(중독), 정소영(소꿉놀이), 윤성노(우리의 숨 구멍은 쓰레기통인가), 김다니(딸의 소망), 이현석(왜 날 낳았어?), 유영해(엄마와 함께 금연 스크랩), 안병욱(금연), 안미경(금연맹세), 양길석(흡연 피해2), 이유창(금연캠페인2), 강미옥(즐거운 흡연 예방교실), 이명희(주의), 김혜지(너도 필래?), 서영

남(흡연자의 도리), 박현영(소녀의 기도), 박수진(꽃 촌대국), 권지영(너부터...), 이광호(?...!), 이기성(함께하는 금연), 김동수(금연캠페인), 윤병우(무제), 송민정(Cut), 조재경(청소년 운동), 김현규(계속되는 실천), 권연진(받기 싫은 고백), 김기용(고통을 참으시며 피는 담배 맛있습니까?), 안슬기(사(死)용품), 권대현(금연의지), 안재경(너도 이제 끊어!), 김다니(나를 위한 행동), 고수미(어른들을 향한 아이들의 외침), 서병태(간접흡연도 싫다), 신선희(금연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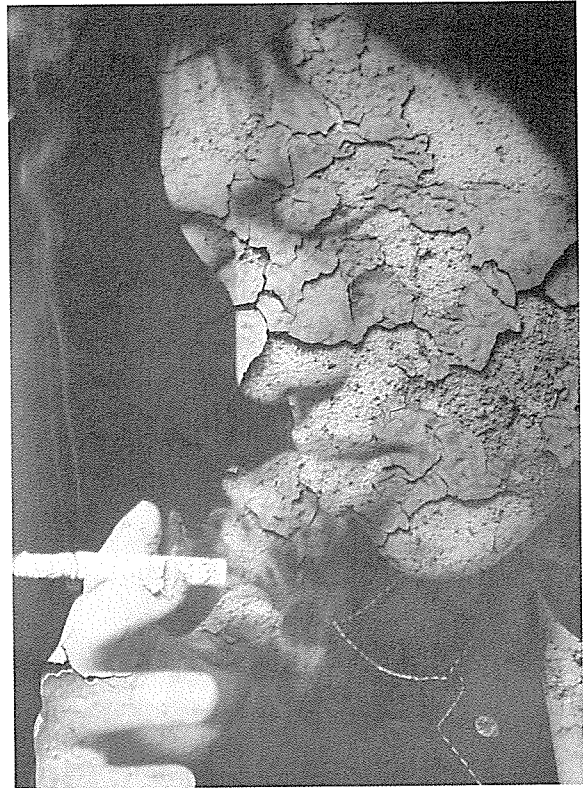
【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

의한 기교는 제외되며, 마포



이재원 아빠 너무해요!

[금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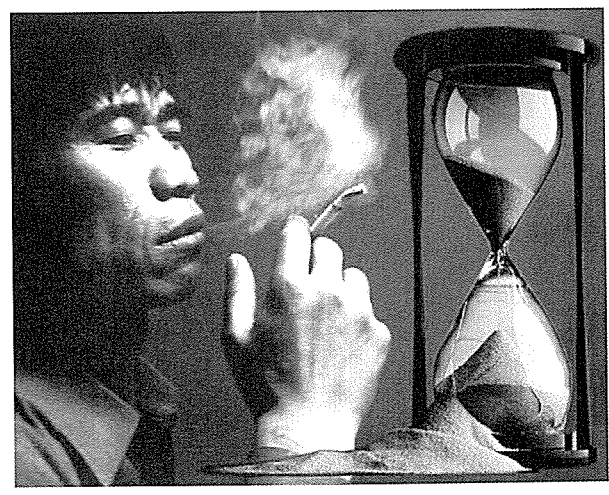
한용덕 뒤늦은 후회

하러미 '미운아후미' 시에가든 사와
아

[은 상]



권대현 죽음의 향



주영미 흡연으로 당신의 시계가 위험받고 있습니다